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Tele Trader: 8월 미 비즈니스 활동 지수 6개월 만에 최저치
- MSN: 7월 미 신축 주택 판매, 높은 모기지 불구하고 상승
- Bloomberg: 젊은 미 베이비 부머, 45세 때 급여 최고치
- WSJ: 전 세인트루이스 은행 총재, "경기 침체 없고, 금리 올려야"

[미국 금융]

- WSJ: 실질 수익률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부동산]

- WSJ: 미 기업들 임대 사무실 크기 줄인다
- Bloomberg: 미 주택 모기지신청 건수, 1995년 이후 최저치

[의료]

- WSJ: 미국 요양원 시설이 줄어든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Dick's 스포팅과 Macy's "수익 전망 어둡다"
- Bloomberg: Ralph Lauren CEO, "메타 버스 젊은층에 타겟 맞춰"
- Bloomberg: 미 근로자들 "새 직장에서 7만 9천불 연봉 원한다"
- Bloomberg: 미 기업들, 채용 공고서 '다양성' 표현 많이 사용
- Bloomberg: Goldman, 주 5일 출근 부이행 단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TeleTrader: US business activity at six month-low in August 8월 미 비즈니스 활동 지수 6개월 만에 최저치

- S&P 글로벌은 8월 미국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활동이 더욱 위축되었다. 서비스 및 제조업의 실적을 산출하는 구매관리자지수(PMI) 종합생산지수가 7월의 52.0에서 50.4로 하락하여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S&P 글로벌의 예비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 서비스 활동지수는 7월에 52.3에서 8월에는 51로, 제조업 생산지수는 50.2에서 47.5로 떨어졌다.
- 이 기관은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 상승 압박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투입 지용 인플레이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가 계속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Tele Trader 기사

MSN: New home sales rose in July despite spike in mortgage rates 7월 미 신축 주택 판매, 높은 모기지 불구하고 상승

- 미정부 주택도시개발부와 센서스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신축 주택 판매는 6월의 하향 조정이 연율 68만4천건에서 7월에는 계정 조정치로 연율 71만4천건으로 늘었다. 상승 폭은 4.4%. 1년 전보다는 31.5% 증가했다.
- 구매자들이 기존 주택 매물이 낮은 상황에서 신축 주택을 옵션으로 고려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모기지 이자율이 3% 또는 4%였던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 이자율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꺼리고 있다. 그리고 이자율이 7% 상회한 수준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SN 기사

Bloomberg: Youngest Baby Boomers' Pay in the US Peaked When They Hit 45 젊은 미 베이비 부머, 45세 때 급여 최고치

- 베이비 부머 세대중 1957년부터 1964년사이에 태어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45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급여가 최고치에 도달한 것으로 최근 연방 노동통계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이들은 시간당 급여가 24세가 될때 까지 급증했다가 44세까지 둔화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평탄한 수준을 보였다.
- 이들은 18세부터 56세까지 평균 12.7개의 직업을 가졌으며 대부분의 직업 전환은 젊었을 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18세부터 24세까지는 6개 직업을 옮겨 다녔고, 45세부터 56세까지는 바꾼 직업 숫자가 2.3개로 줄었다.

Bloomberg 기사

WSJ: Recession Fears Have Been 'Blown Out of the Water,' Long-Serving Fed President Says 전 세인트루이스 은행 총재, "경기 침체 없고, 금리 올려야"

- James Bullard 전 총재는 미국 경제가 더 강한 새로운 리스크를 겪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미국 12개 지역연방은행 책임자로서 가장 길게 역임한 전 세인트루이스 총재였던 그는 지난달 사직한 후 이번 달부터 퍼듀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연준 관리들은 올해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곧 열리게 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나올 것이며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가 지금은 3% 갓 넘은 수치로 떨어

졌고, 핵심 인플레이션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실업률이 3.5% 환경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What Are Real Yields, and Why Do They Matter?

실질 수익률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실질 수익률(국채의 공시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는 2009년 이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10년 만기 국채 인플레이션 보장 수익률(inflation-protected security yields)은 현재 미국에서 2% 정도된다.
- 실질 수익률은 차입 비용을 높여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자들이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현금성 상품으로 이동하여 주식, 금 등 더 위험한 자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계속될 경우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데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계속 급등할 것이라고 말한다.

WSJ 기사

[부동산]

WSJ: Office Tenants Are Renewing Leases—but for Far Less Space

미 기업들 임대 사무실 크기 줄인다

- 사무실 건물주에게 좋은 소식은 올해들어 임대 계약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새로운 임대 공간의 크기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수년동안 회사들은 임대 사무실 공간을 계속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 이유는 하이브 근무 상황에 따라 인력 수용 공간이 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향후 최대 15년까지 임대 사무실 크기를 줄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Home Purchase Applications Hit Lowest Since 1995 on Rate Rise

미 주택 모기지신청 건수, 1995년 이후 최저치

- 지난주 미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 건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출 비용 급등 때문이다.

- 주택 구입 신청에 대한 모기지 뱅커 협회 지수(Mortgage Bankers Association)는 5% 하락한 142. 이는 1995년 이후 최저치이다.
- 한편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 금리는 8월 셋째주에 15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31%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말 이후 최고치이다.
- 지난달 정책 입안자 모임에서 대부분의 관리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에 대한 상승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과 함께 주거용 주택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Bloomberg 기사

[의료]

Bloomberg: US Home Purchase Applications Hit Lowest Since 1995 on Rate Rise

미국 요양원 시설이 줄어든다

- 미국에서 너싱홈이라고 불리는 요양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6년 전보다 최소 6백개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월스트리트지가 연방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이유는 팬데믹으로 많은 가족이 요양원 이용을 기피하는 데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요양원에서 인력이 더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몸이 약한 노인 환자들은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 수개월씩 병원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 반면에 노인 보살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미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에 5천6백만명에서 2040년에는 8천1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Dick's Sporting Goods, Macy's Flash Warning Signs on U.S. Consumer Spending

Dick's 스포팅과 Macy's “수익 전망 어둡다”

- 딕스와 메이시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소비자 지출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는 소비자들이 지출 방식에 있어 더욱 신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스는 올해 수익 목표를 낮췄다. 팬데믹으로 아웃도어 장비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후 판매가 둔화되어 현재 재고가 과잉 상태이다. 또한 상품도난 건수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 메이시스는 6월 분기 매출 감소를 보고하며, 신용 카드 결제를 연체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제 연체는 백화점 체인의 주요 수익원을 위협하기 때문.
-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압박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재개하면 추가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메이시스 최고 경영자 Jeff Gennette가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Ralph Lauren CEO Louvet Targets Young Shoppers in the Metaverse

Ralph Lauren CEO, “메타버스 젊은층에 타겟 맞춰”

-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젊은 소비자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젊은 소비자를 유치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
- 소비재 업계의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경향은 뷰티 업계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패션계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재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더 능하다.
- 메타버스에 관심과 투자를 할 계획인가?: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고 그곳에는 젊은층이 있다. 그들은 거기서 우리와 같은 브랜드와 연결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Fortnite와 파트너십을 맺어 메타버스에서 멋진 부츠를 개발했고, 실제 버전도 만들었다.
- 브랜드 모델 선택 방법은: 우리 회사는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돈을 받았으니 우리 회사를 홍보 하고, 다음 날은 경쟁사에서 돈을 받았으니 경쟁사를 홍보해주는 모델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브랜드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은 모델은 택한다.
- 리더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다. 또한 위험을 신중하게 감수한다.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혁신과 실험, 새로운 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회사 내부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erican Workers Want Almost \$79,000 Salary to Start a New Job

미 근로자들 “새 직장에서 7만 9천불 연봉 원한다”

- 뉴욕 연준 조사에 따르면 미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이 약 7만 9천 불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 여성의 임금 요구가 남성보다 두 배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 평균 계약 임금은 7월에 78,645불. 이는 2022년 7월의 72,900불과 2021년 7월의 69,000불보다 상승한 금액. 평균 계약 임금은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수락할 때의 최저 연봉.
- 여성 임금 기대치는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이는 남성보다 두 배 빠른 속도. 하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라 급여 격차가 존재한다.
- 남성의 평균 계약 임금은 약 9만 1천 불이다. 여성은 이보다 2만 5천 불 낮은 6만 6천 불이다.
- 대학 학위가 있는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수락할 때 연간 9만 8천 6백 불을 기대하는 반면, 학위가 없는 근로자는 평균 6만 3천 3백 불을 기대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ompanies Are Using Diversity Language More in US Job Postings

미 기업들, 채용 공고서 '다양성' 표현 많이 사용

- 미국 기업들이 올해 채용 공고에서 다양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 기업의 채용 공고 제작을 지원하는 회사인 Textio에 따르면 올해 6개월 동안 미국 채용 공고의 약 12%에 '형평성'이란 단어가 포함되었다. 작년의 10.1%에 비해 증가한 것. '다양성'에 대한 언급은 31.6%로 1%p 증가했다.
-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인종의 직원을 고용하길 원한다”며 “고객이 인종적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포용적 마케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Textio CEO Kieran Snyder이 말했다.
- 그는 “고객 인구 통계를 대표하는 팀이 없다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제품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man Is Cracking Down on Employees That Aren't in Office Five Days a Week

Goldman, 주 5일 출근 부이행 단속

- 골드만 삭스가 주 5일 출근을 무시한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다.
- “필요한 경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 기존 정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 뿐”이라며 “우리는 직원들이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인사 책임자인 Jacqueline Arthur이 말했다.

- 씨티그룹에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출퇴근 정책을 무시할 경우 급여에 영향을 미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P 모건은 4월 직원들에게 메니징 디렉터들은 는 매일 출퇴근 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물가상승률 2%는 과학이 아니다"...美연준 정책목표 수정론 확산

"인플레 위기 이미 진정...인플레 2% 복귀 고수하면 경제 전반 고통"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정책목표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복귀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연준이 인플레이션 2%대 복귀를 위해 얼마나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반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9.1%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3.1%까지 하락하면서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